

스웨덴 「알빈슨」교수 초청강연회



한국에너지협의회(WEC 한국국내위원회)는 지난 7월21일 여의도소재 중소기업회관에서 스웨덴 경제인연합회(Federation of Swedish Industries) 에너지·환경분야담당 책임자인 「알빈슨」교수(Prof. H. Albinsson)를 초청하여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강연회에는 회원사의 이분야 관련 임직원 40여명이 참석해 「알빈슨」교수의 강연을 경청하였으며 강연이 끝난 후 참석자들의 깊이 있는 질문과 해박하고 조리있는 답변이 이어져 에너지와 환경문제에 대한 불가분의 연관성을 새로이 인식하는 진지한 분위기가 강연이 끝날 때까지 2시간동안 지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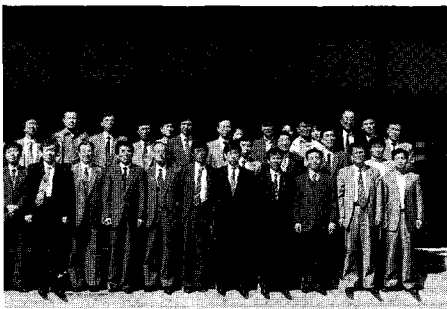
환경보전, 산업폐기물처리 가장 중요

이번 강연회는 금년 9월 WEC 제15차 총회에서 발표될 이 위원회 최종보고서의 주요내용을 발췌하여 설명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강연회의 주요내용을 보면 ① 연료처리 ② 재래식 발전소 및 원자력발전소 폐기물의 처리와 처분 ③ 유리·종이·플라스틱·음료용캔 등의 재활용 ④ 고품폐기물의 소각설비 ⑤ 폐기물 매립장 등에 대한 주요 선진국의 현황을 동일한 기준에서 비교하고 있어, 최근 환경문제

에 대해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에너지·환경 산업부문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24면~33면 특집참조)

알빈슨 교수는 현재 WEC의 산하연구 위원회중의 하나인 “환경·에너지·폐기물처리 위원회”(Environmental and Energy Aspects of Waste Handling Committee)의 위원장직을 맡고 있기도 하다.



회원사산업시찰, 간담회 정보교류 협력증진기회마련

한국에너지협의회는 지난 10월6일 회원사 실무책임자 약 40명을 초청, 국내 첨단산업 업체인 '삼성전자 수원공장'을 견학하였다.

이날 참가자들은 삼성전자의 신기술 개발제품의 모델전시관과 전자제품 생산 공장을 직접 견학함으로써 우리나라 첨단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기술정보를 습득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한편 산업시찰 현장견학은 TV생산공

에너지공학회 현판식 여의도 韓電南서울電力 6층에 사무실

한국에너지공학회는 지난 9월30일 서울여의도에 있는 한전남서울전력관리처 사옥6층 에너지공학회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거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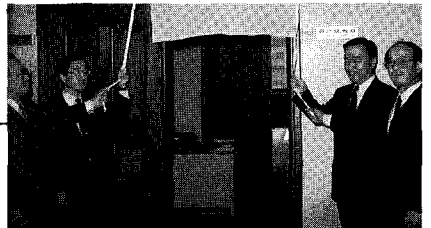
이날 현판식에는 에너지공학회 정근모회장, 에너지기술연구소 오정무소장, 전기연구소 안우희소장, 한국가스공사 선우현범부사장,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박元勳박사등 공학회 임원진과 에너지관련

기관 대표등 2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정근모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에너지문제는 더욱 긴밀한 學際的협력과 시스템엔지니어링적인 방법에 의해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하여 해결점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현판식이 끝난후 공학회는 학회사무실에서 조출한 리셉션을 베풀었다.

〈공학회 간판을 제막하고 있다〉



정과 제품완성의 전과정을 직접봄으로써 첨단산업 발전현황과 에너지분야에 종사하는 실무자로서 에너지의 효율향상과 절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산업현장 견학후 가진 회원사 간담회에서는 참석자들로부터 에너지관련

분야의 상호 정보교류와 협력증진을 통한 회원유대를 더욱 돈독히하여 국내 에너지산업 발전에 다같이 노력하자고 다짐하였다.